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8월 후원미사는 19일, 9월 후원미사는 16일, 10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4,800,766	전월아월금	30,000
지 로	2,385,120	우리은행	3,186,000
국민은행	3,946,000	하나은행	881,000
조흥은행	85,000	신한은행	900,000
외환은행	347,500	제일은행	140,000
농 협	1,070,100	기업은행	675,000
우 체 국	25,000	교구보조	1,160,046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벧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운영관리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4,825,000	잔액(이월금)	5,766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7 / 제37호

펴낸날 2019. 7. 15 |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 펴낸이 남창현 |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 팩스 (02)924-9972 |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찬미예수님!

며칠 전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차해 있는데 따라오던 뒷 차에 추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차는 정비소로 보내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니 책임은 100퍼센트 뒷 차에 있다고 하더군요.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아무리 안전히 운전을 해도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산다하여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한번은 친한 신자 분에게서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 성당에 발을 끊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는 적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고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신자였는데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돌고 돌아 본인에게 전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신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아주 크셨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일은 그 상대방의 부작함으로 인해 그저 벌어진 일이고, 그 일을 상처라고 생각한 것은 자매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벌어진 사고를 불행으로 규정하고 상처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짓고, 받아들일지는 순전히 나의 몫입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살아 있음이 감사하고, 내 가족이 함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분을 따르는 좋은 벗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가족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라고 이름붙인 기억들이 있다면 그 딱지들을 하나 둘씩 떼어내고 반대로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기쁜 한 달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공동체 소식

사랑의 집 소식*



지난 6월 15~16일 9명의 입소자들과 함께 경주, 포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의 설렘으로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들 간에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모자가정으로 자립하여 살아가기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삶 안에 이런 시간들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위원회 소식*

이주사목위원회의 각 센터와 국가별 공동체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소식지 발송 작업에는 약 20명의 신자 분들이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마고네 공부방에는 한 달에 한 번씩 5년 짜 요리 봉사를 하는 고등학생도 있으며 베들레헴 어린이집에는 22명의 노력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있으시며 작고 굵은일도 마다않고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자원 봉사자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학생 현장체험 소식*

서울대교구 신학과 4학년 신학생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회사목국의 각 위원회에 실습을 나 오셨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에는 3명의 학사님께서 이주사목위원회의 센터에서 다양한 실습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험을 통하여 이주사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외국인 부모 교육



성북동 지구수비대 방문

공지사항 사제 인사 발령*

2015년 3월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이주사목위원회 필리핀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신 알프레도 신부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본국으로 복귀하시며 날로 신부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주사목에 힘써 주신 알프레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필리핀에서 오신 날로 신부님도 새로운 사목지에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좌)Fr.알프레도 / (우)Fr.닐로

문화알림 축제 1편



덴 흥 축제는 베트남 건국의 공이 있는 흥 왕을 기리는 축제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음력 3월 9일부터 3일간 열리는데, 이 중 10일이 축제의 날로 국가의 대표가 참석하여 옛날 흥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사당에서 향을 피우므로 시작이 됩니다. 베트남의 기원과 정체성을 담은 덴흥 축제는 국가 주석과 고위 관리 다수가 참석하는 국가적 규모의 행사이자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54개 민족이 한데 어우러지는 통합의 축제입니다. 푸토 성의 흥 왕조 숭배 의식은 오랜 역사를 지닌 채 이어져온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덴흥 사원 곳곳에서 북 연주와 가창 등의 전통 예술 공연, 가마 행렬, 전통 놀이 등이 펼쳐지고,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가족들의 행복, 건강을 기원합니다.

나담은 해마다 7월 11일 ~7월 13일까지 몽골 전역에 걸쳐 즐기는 전국적인 축제로, 씨름·말타기·활쏘기 등 3가지의 전통 경기가 주를 이룹니다. 나담은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초원에서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의 유목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몽골인은 축제 기간에 전통 의상을 입고 독특한 도구와 스포츠 용구를 사용하는 등, 특별한 의례와 관습을 지킵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각종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존경하며, 경기에 우수한 선수는 성과에 따라 칭호가 부여됩니다. 3가지의 스포츠는 몽골인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조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 씨름과 활쏘기에 대해 제대로 형식을 갖춘 훈련법이 개발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그 기술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나담의 의례와 관습은 또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하얼빈얼음축제(하얼빈빙등제)는 매년 1월 5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개최되는 눈과 얼음의 겨울 축제입니다. 개최 기간에는 전 세계의 유명 얼음조각가들이 모여 들어 세계의 유명 건축물이나 동물·여신상·미술품 등의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는데, 영하 20°C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 얼어붙은 송화강의 단단하고 하얀 얼음을 이용합니다. 하얼빈시는 영하 20°C 아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중국 국내는 물론, 홍콩·타이완 등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해마다 1,500여 점 이상이 전시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눈·얼음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